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훑어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훑어보기2022-05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훑어보기] 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결산한 국제신문
• 모니터기간	2022년 4월 7일~15일
• 날 짜	2022년 4월 19일

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마무리 앞서, 의정 활동과 성과 결산한 국제신문

이슈 3

조례제정 200여 건 증가... 초선 패기·입법 활동 돋보였다

8대 부산시의회 결산 <상>

4년 전 부산 정치의 대변적 속에 출범한 재·8대 부산시의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역대 첫 초선 여성 의원을 동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숨은 화제를 코뮤티 시의회는 활발한 조례 제정 등으로 의원 개개인의 입법 기능이 향상되고, 시장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도 순시를 다들 정도로 의정활동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신상재 의장 취임 이후에는 부산의 11대 장기표류 시정을 해결하고자 시의회가 나서서 집행부인 시의 신속한 행정을 이끌어내면서 호평 받았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질적 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럿이다. 8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면서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제적의원 중 87% 차지 '화제' 역대 첫 초선 여성 의장도 탄생

조례·규칙안 발의건수 618건
 김광호·노기섭·이순영 '활약'
 시장질문은 정상채 10건 최다
 5분 자유발언도 308건, 68건 늘어

8대 부산시의회는 마지막 한 차례의 정례회를 남겨 놓은 현재 4년 동안 조례·규칙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의정 활동 지표에서 7대 의회에 같은 기간에 비해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조례·규칙안 발의 건수는 7대 시의회보다 200여 건이 많은 정도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질문 건수는 7대 시의회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5분 자유발언 건수는 소폭 늘었다.

입법활동 1위 김광호·노기섭·이순영
 8대 시의회에서 의원들은 모두 618건의 조례·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는 7대 의회의 발의 건수(394건)와 비교할 때

회 평균 11.7건(87%)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8대 시의회의 발의 건수에는 조례·규칙의 시기 등 특정 부문과 고치는 단순계정안은 물론 일부 개정안도 제외한 순수 제정안만 포함했다. 그래서 8대 시의회의 입법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 개인별로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광호(해운대)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노기섭(북구), 교육위원회 소속 이순영(북구) 의원이 각각 31건씩 발의한 해 1위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 원주민의 전 조약"을 내세워 제정을 아꼈었다. 원주민 안전 정착에 있어 부산시의 영남혁신 권화하기 위한 주민 복지인권 증진 조약의 지원 조례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윤지영(비례) 의원이 28건,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해운대)·교육위원회 이정화(수영) 의원이



8대 부산시의회는 조례·규칙안 발의 등 각종 의정 활동 지표에서 역대 시의회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이 각각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재경(영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문기(동래) 전 의원은 각각 22건을 발의에 참여기에 올랐다.

시장질문 정상채, 5분 발언 최도석
 의정활동의 꽃인 시장질문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상채(부산진) 의원이 10건으로 1위였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최병혁(수영) 전 의원이 9건, 도시환경위원회 고재경(영도) 의원이 각각 7건, 7대 시의회(1.88건)와 비슷했다.

5분 자유발언 건수는 시장질문과 달리 다소 늘었다. 8대 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308건으로, 7대 시의회(140건)보다 88건이 더 많았다. 의원별 횟수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최도석 차의장과 윤지영 의원이 각각 28건과 25건을 하면서 1, 2위에 올랐다. 노기섭·정상채 의원이 각각 23건씩, 김삼수 의원은 21건, 도시환경위원회의 소속 김진홍(동구) 전 의원은 1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제정 조례안 발의 건수	
김광호·노기섭·이순영	31건
윤지영	28건
김삼수·이정화	27건
고재경·김문기	22건
○ 시장질문 횟수	
정상채	10건
최병혁	9건
고재경·이정화·최도석	8건
○ 5분 자유발언 횟수	
최도석	28건
윤지영	25건
노기섭·정상채	23건

△ 4월 7일 국제신문 <8대 부산시의회 결산> (상)

지방선거 직선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며 신진 정치인이 대거 진출한 8대 부산광역시의회,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선 의원이 대다수라는 우려의 시선을 받으며 출범해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 경선과 공천에 관심이 쏠리면서 8대 부산시의회 의정 마무리 활동은 대부분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문은 '8대 시의회 결산' 기획을 보도해 눈에 띄었다. 3건의 기사로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 지표, 주목할만한 조례, 인사검증 강화 등 성과를 짚었다.

△ 4월 7일 3면 <조례제정 200여 건 증가... 초선 패기·입법 활동 돋보였다> (상)

△ 4월 12일 4면 <전국 최초 조례만 34건... '아동주거조례'로 37명 공공주택 지원> (중)

△4월 14일 4면 <공공기관장 검증장치 마련…장기 표류사업 해결 앞장도> (하)

먼저 7일 첫 기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조례·규칙 발의, 5분 자유발언 등 각종 의정 활동 지표를 소개하며, 7대보다 대폭 증가해 입법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기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준 조례를 소개했다.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련 조례’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부산시 원자력 안전 조례’ 등을 사례로 들었고,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이라며 성과로 평가했다.

14일에는 8대 후반기 활동을 돌아봤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시도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한 점, 부산의 장기표류 과제를 선정해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상해 시의회 의장 인터뷰도 실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는 등 부산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구다. 언론에서도 활동에 주목하고 적극 감시해야 할 대상이지만 실제 지역언론의 관심은 부족하다. 그런만큼 국제신문의 ‘8대 부산시의회 결산’은 6월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하는 시의회에 활동을 되짚어 시의적절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친 조례 제정을 소개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성과를 짚은 점이 눈에 띄었다.

다만, 첫 기사에서 8대 의정활동 결산과 함께 남은 과제도 살펴본다고 했으나 실제 기사는 성과 위주로만 구성되어 아쉽다. 이후 시의회 과제를 짚고, 시의원 재산을 분석해 ‘언행불일치’를 보인 시의원 행태를 지적한 <북항 공공개발 외치던 시의원들, 생숙 사들여 수억대 차익>(4/14, 6면)와 같이 시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 평가도 이어졌으면 한다.

‘8대 부산시의회 결산’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기준을 제시하고, 시의원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끝>